



우리의  
家章

#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明求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heongsongsim.or.kr

## 11世祖 贈左承旨 行 溫陽郡守公 諱:仁謙(휘:인겸) 墓碣文



▷ 온양공 묘소 김포 웅정리



▷ 묘표석

양친이 이미 세상을 뜨고 나이 아직 20세가 못 되어 드디어 과거 보지 않았다. 어른들 앞에서는 자제들을 허물하지 않았고 형제간에는 화목하게 즐겼으며 봉우간에는 무리를 이루고 신의(信義)가 있었다. 상을 당하여서는 상례를 지켰으며 선조를 받드는 데 법도를 두었다. 재물은 양보를 잘하고 무리한 경영을 싫어했다. 관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는 까다롭고 세밀하지 않았으며 혹 엉뚱한 견책으로 직위가 해제되어도 허물을 뒤집어쓰고 변명하지 않았으니 한때 모두들 장자라고 칭찬하였다. 공이 죽음에 상감께서 유사에게 명하여 관원을 예우하여 부조를 하고 제사에 조문케 했으니 특이한 대우였다. 뒤에 공의 손자인 청운군 명세(靑雲君 命世)가 귀하게 됨으로써 좌승지(左承旨)의

### 온양군수공

공의 휘(諱)는 인겸(仁謙)이요, 字는 양숙(讓叔)이다. 아버지의 휘는 강(綱)이니 영도녕부사(領敦寧府事)에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으로 시호(諡號)가 익효(翼孝)이시고 어머니는 완산부부인(完山府夫人) 李氏로서 현령(縣令)인 대(薨)의 딸이다. 가정 계사(嘉靖癸巳: 1533)년 6월 공이 태어나서 무오 1558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갑자 1564년에 익효공의 명령으로 처음 음사(陰仕)로 보직을 받았으니 내직으로는 활인서 별제(活人署 別提), 남부 예빈시(南部禮賓寺), 군기시(軍器寺), 사온서 주부(司醞署主簿), 사포서 사포(司圃署司圃) 다시 공조와 형조의 좌랑(佐郎), 장예원 사평(掌隸院司評), 사의(司議), 선공감 판관(善工監 判

官), 도총부도사(都總府都事), 호조와 공조 형조의 삼조(三曹) 정랑(正郎)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 서윤(庶尹) 등을 역임하고 외직으로는, 천안(天安). 풍덕(豐德). 온양(溫陽) 세 곳의 군수를 지냈는데 만력(萬曆) 8년인 경진(1580)년 11월 17일 온양의 군사(郡舍)에서卒하니 나이 48세였다. 공은 사람됨이 편안하고 도량이 넓어서 평생을 참되게 지내며 억지 쓰지 않으며, 한때 집안이 환하게 빛나서 귀하고 성했으나 한 차례도 부귀로써 남의 뜻을 억누르지 않았다. 공부가 일찍 숙성하여 저술에 능하고 예서(隸書)를 잘 써서 여러 차례 발표하여 등류에서 높혔으니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배들이 애모하였으나 또한 재주가 있다고 자랑하지 않았다.

증직을 받았다. 부인은全州李氏이니 형조좌랑(刑曹佐郎) 발(拔)의 딸이다. 가정신묘(嘉靖辛卯: 1594)년 8월 17일에 졸(卒) 하셨으니 묘(墓)는 통진 웅정리(通津 瓮井里)의 선영(先塋)에 있다.

북병사 이제신(北兵使 李濟臣) ① 글 지음.

### 주(註)

① 이제신(李濟臣) : 1536년(중종 31년)~1584(선조 17년).

字는 몽응(夢應) 호(號)는 청강(淸江) 본관은 전의(全義) 병사 문성(文城)의 아들.

함경도 병마정도사 역임 시호는 평간공(平簡公)

< 끝 >

公

告

## 青松沈氏大宗會

### 三十七回定期總會開催

二〇〇七年度第三十七回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公私間 다망하실 줄 사료 되오니 많이 參席하여 주시기를 仰望하나이 다.

◎ 다 음 ◎

◇ 일시 : 二〇〇七年 四月 十九日(木요일) 午前十一時

◇ 장소 : 서울종로구 명륜동 성균관 (유림회관 二층)

◇ 전화 : (02) 744-10677

◇ 회비 : 壹萬원

◎ 부의 안전 ◎

一 . 二〇〇六년도 회무보고

二 . 二〇〇六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승인의 건

三 . 二〇〇七년도 사업계획승인의 건

四 . 二〇〇七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

五 . 임원개선의 건

六 . 기타 중무에 관한 사항

二〇〇七年 三月 日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명구

◇ 문의처 : (02) 1267-7857

※ 별도로 개인별 통지가 없아오니 유의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二世祖 奉翊大夫公 (諱:晟) 事蹟 ①

#### 癸卯년에 붓으로 쓴 족보서문

우리 청송심씨는 즉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큰 성(姓)이 큰 벼슬이 끊이지 않았고 명문으로서 빛난지 천 백대가 되었어도 사람들이 칭송(稱頌)하고 있다.

홍무(洪武) 25년 壬申(1392)에 전서공 휘 之伯이 우리 太祖大王을 도운 공이 컸었고 우리 太宗元年(1401)에 端川에 들어왔으므로 자손이 인하여 살게되어 지금까지 440여년이 되었다.

서울과 시골이 멀어지고 높은 벼슬이 점점 끊어져 하나의 시골 사람임을 면치 못할 뿐이었고 또 단천에서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사는 사람의 수가 자못 많았다.

그러나 자손이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았으니 나무의 가지 잎새와 물의 여러 갈래가 한 근원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었다.父子 형제 몸에서 비롯하여 끝내 후손에 이르러서는 멀어져 비록 같은 姓이지만 길가는 사람 보듯 하니 진실로 근원으로부터 생각한다면 어찌 유감이 없겠

는가이에 중국 오(吳)나라의 육기(陸機)의 한문시가 진(陳)나라 사람보다 앞섰으니 능히 이로써 서울 사람과 같이 족보를 해야 할 것이다.

황명숭정(皇明崇禎) 기원후 216년 癸卯(1843년) 가을에

후손 의승(宜升)이 서문을 지음

#### 신보발문(新譜跋文)

이는 우리 입북시조(入北始祖) 전서공 휘 지백 이하의 통보(通譜)이다. 족보라는 것은 세계(世系)를 만들고 일가를 모으며 그 근본을 도타히 하고 그 사실을 밝게 상고하며 증거에 의심나면 기록하지 말고 밝게 나타내며 사실을 기록하여 바른 글과 빛나는 바탕으로 풍속을 돕는 것이 귀중한 것이니 만약 이에 반하여 다만 문구(文具)만 숭상하면 법 받을 수 없다. 아아 슬프다. 순(舜) 임금의 아버지인 고수(瞽叟)의 후처(後妻)의 아들 상(象)이 죽이고자 하자 이를 슬기롭게 피하였다. 오직 보사(譜事)로써 일을 삼아 앞을 다투어 족보를 하는 것은 대개 조상을 생각하고 일가를 모으는데 뜻이 있으나 문벌(門閥)을 자랑하여 혹 근본을 잃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으니 과연 참된 족보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는가甲子년 여름에 송포(松浦) 낙중

(洛鍾)과 사헌(思軒) 두 종장(宗丈)께서 개연(慨然)히 뜻을 가지고 조상이 이미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손이 흩어져 사는 것을 염려하여 일가끼리 화목 하는 정의(情誼)로 원근(遠近)의 여러 일가들에게 빠짐없이 통문을 내어 정성껏 협조하였다. 이에 널리 구보를 보고 후손을 찾아 믿을만한 족보를 하려고 하였으나 오직 갑산(甲山) 흥종(興宗) 한 파의 수단이 늦게 도착하여 기호(幾湖) 종과의 상세(上世)에 실려 도합 11권을 만드는데 송포와 사헌 두 어른의 수고가 적지 아니하였다.

乙丑년 가을에 위원장 윤석(允錫)과 봉양(鳳陽) 형수(亨洙)가 활판(活版)에 부치는데 마음과 힘의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다섯 달만에 완성하니 북쪽에서 들어 온지 5백년 동안에 드물게 보는 성대한 일이었다.

아아 슬프도다. 先世의 공훈이 빛나고 충효를 행한 것이 책머리에 실려있고 또한 전에 지은 범례와 수보내력(修譜來歷)이 있으니 어찌 감히 두 말을 하리오 다행히 밝고 진실된 자취를 떨어뜨리지 말고 닦아 길이 힘쓰면 어찌 천하에 밝은 날이 없으리오 오로지 느낀 바를 글에 썼다.

乙丑년 九月 하순에 불초 후손 낙진(洛鎭). 정훈(正勳)이 두 번 절하고 삼가 발문을 지음. <끝>

### 朝鮮後期 天才 畫家

####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평전(評傳) ①



#### 1.가문(家門)을 지키는 지혜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은 진경시대(眞景時代: 1695~1800) 중반기에 나서 조선남종화풍(朝鮮南宗畫風)을 대성(大成)해 낸 사대부(士大夫)화가다. 그래서 독창적인 진경산수화풍(眞景山水畫風)을 이루어 낸 그의 스승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1759) 및 풍속화풍(風俗畫風)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관아재(觀

我齋) 조영석(趙榮祐 1686~1761)과 함께 '사인삼재(士人三齋)'로 일컬어지는 영광을 누려왔다.

그러나 현재는 겸재나 관아재가 진경시대를 주도하던 조선성리학 이념에 입각해 조선 고유색 짙은 진경산수화풍이나 풍속화풍의 창안으로 일가(一家)를 이루어 냈던 것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조선 고유색의 발원이라는 진경시대 특유의 문화성향을 외면하고 중국풍의 명대 남종 문인화풍(南宗文人畫風)을 받아들여 자기화 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것이다. 그 결과 현재는 조선남종화풍이라는 독자적인 자기화풍을 이루어 낼 수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겸재, 관아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士人三齋'의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이런 회화성향을 분명 당시 진경시대를 이끌어 가던 진경산수화풍이나 풍속화풍과는 길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어려서 겸재 문하에 나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현재가 스승의 독특한 진경산수화풍을 계승하지 않고 이렇게 명대 남종화풍의 계승이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데는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현재의 집안 환경과 교유관계 시대배경 등을 유기적으로 살펴가면서 그의 한 평생을 추적해 나가보겠다.

현재 집안이 권문(權門)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 것은 현재의 증조부인 만사(晩沙)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때부터이다. 심지원이 효종 3년(1652)에 그의 셋째 아들인 심익현(沈益顯 1641~1683)을 효종 셋째 따님인 숙명(宿明)공주(1640~1699)에게 장가보내 효종과 사돈관계를 맺고 나서 형조판서,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차례로 거치며 10여 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지원이 이처럼 권력의 정상에 이르기까지는 과란만장하고 복잡한 과

정과 그 선대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그 대가를 역대 조선왕조실록과 각종문집 및 청송심씨족보(靑松沈氏族譜) 등을 종합해 살펴보겠다.

청송 심씨는 청성백(靑城伯) 심덕부(沈德符: 1328~1401)가 조선왕조를 개국하는 과정에서 개국공신이 되어 권문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심덕부는 태조 이성계(李成桂: 1335~1408)가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할 당시 서경(西京) 도원수로 있으면서 이를 적극 후원했고, 개국 직후 한양(漢陽)에 신도(新都)를 건설할 때 이의 총책을 맡았었다. 이런 대공으로 청성백의 작위를 받고 벼슬이 좌정승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권세는 그 아들대로 이어져서 그의 일곱 아들이 모두 벼슬에 나가 권문세자로 자리를 굳혀 가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다섯째 아들인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심온(沈溫: 1375~1418)이 세종대왕(1397~1450)의 국구(國舅: 왕의 장인)가 되어 영의정에 이르자 외척의 발호를 염려한 태종(太宗: 1367~1422)이 세종즉위년(1418)에 심온을 역모로 몰아 사사하고 그 일족을 역률로 처단하니 심덕부 후손들은 일시에 권좌에서 쫓겨나 사망으로 유배되는 비운을 겪는다. 이로써 세종대왕 재위 기간(1418~1450) 내내 청송심씨들은 권좌로 복귀할 수 없어 최고 권문세자로 성장하는 꿈을 접어야만 했다.

현재 집안의 중시조가 되는 인수부윤(仁壽府尹) 심징(沈澄)도 그런 피해자 중의 하나였다. 심온의 바로 윗형으로 같은 어머니인 인천(仁川) 문(門)씨 소생이었던 심징은 심온이 사사되자 이에 연좌되어 바로 전라도 해남으로 유배된다. 그러나 워낙 태종이 날조한 역적으로 죄증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곧바로 귀양을 풀어 주었지만 벼슬은 포기해야만 했다. <3면에 계속>

###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內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족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세보: 전 12권(수권1권, 자손록 10권, 색인1권)과CD롬(대동세보 전 내용과시조 ~ 4세조 산소 동영상 수록 하였으며 모든 한자에 음 표기함)

○보급가격: 22만원(CD롬 포함)  
CD롬 별도 구입시: 20,000원  
수권 별도 구입시: 40,000원

○송금구좌: 농협 084-01-179314 심명구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종회(02-2267-7857, 팩스: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부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종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면에서 계속> 이로부터 청송심씨 가문이 최고 집권 가문으로 재부상해가는 길은 멀고도 지리 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심징의 하나밖에 없던 손자인 심선(沈璿)이 개성유수로 있다가 수양대군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자 벼슬을 버리고 양주 풍양(豐壤)으로 낙향하여 망세정(忘世亭)을 짓고 세상과 절연하면서부터는 이 집안이 그대로 침몰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인 심안인(沈安仁 : ?~1488)과 심안의(沈安義) 형제가 이

미 왕실과 혼인을 맺어 상류사회와의 단절만은 모면하고 있었으니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심안인은 태종이 가장 사랑하던 막내 사위 파원군(坡原君) 윤평(尹泮 : 1420~1466)의 맏딸이자 외딸에게 장가들어 있었고, 심안의는 세종 후궁 소생 둘째 따님인 정안(貞安)옹주에게 장가들어 청성위(靑城尉)에 봉해져 있었다.

이에 자연스럽게 이들 형제에게는 왕실로부터 많은 강토가 분배되었을 터인데 특히 심안인의 경우는 검소하고 이재

(理財)에 능하여 부자였었다는 파원위의 재산을 거의 모두 상속받았을 터이므로 그의 재력은 엄청났으리라 생각된다. 그런 사실은 신숙주(申叔舟 : 1417~1475)가 지은 윤평의 묘지명에서 짐작할 수 있으니, 그 내용의 일부를 옮겨 보겠다.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연구실장 최완수(崔完秀)  
(2004년 10월 간송미술관 현재 대전 도록)

다음호에...

<문예론>

**광주판관 태등 심노승(廣州判官 泰登 沈魯崇) ㊦**

**속될지언정 거짓 문학은 하지 말라  
(興愼生千能)**

지난번 편지를 받은 후 서울과 교외의 집 사이를 왕래하고 또 며칠 동안 공사(公事)가 있어 미처 답장을 못하다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 부끄럽습니다. 객지 생활 중에 새해를 맞으시니 그래도 지금은 그리움이 조금 줄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보내주신 좋은 작품에서 알지 못하던 바를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첫머리에『춘추(春秋)』를 드신 것은 대단히 법도가 있습니다. 중간에 일을 서술한 것은 반고(班固)와 같고, 일을 논란한 것은 사마천(司馬遷)과 같으니 한유(韓愈) 이하는 논할 것도 없습니다. 아, 이 어찌 쉽게 얻을 수 있는 문장이겠습니까?

박씨의 열(烈)은 진실로 요즘 같은 말세에는 볼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고명(高明 :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의 지극한 문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무릇 사람을 서술하는 문자에 있어 사람은 진실로 문장을 기다려 전해지는 것이요, 문장 또한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과 문장이 제대로 만난 후에야 천지간에 없을 수 없는 좋은 글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박씨 같은 사람이 고명의 문장을 만났으니 박씨는 다행이고 고명 역시 다행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고명을 위해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세상에 글 잘한다고 일컬어지는 자들을 보니 그들은 걸핏하면 스스로 ‘고문’ ‘고문’ 외쳐댁니다. 지금 사람이 왜 고문을 합니까? 고인의 앞 시대에도 고문은 있었지만 고인은 어찌 일찍이 옛것을 좋아하고 지금 것을 싫어하여 지금 사람들처럼 자구(字句)의 찌꺼기에 힘써 그 비슷하기를 구해 절절히 자호(自好)하나 구하면 구할수록 더 비슷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까?

미수(眉叟) 허목(許穆)은 성벽(性癖)이 옛것을 좋아하여 문을 지움에 전모(典謨『서경』)가 아니면 하지 않았고, 시를 지움에는 아송(雅頌『시경』)이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집을 보면 참으로 가소로운 것이 많으니 주차(奏笳)의 끝에는 꼭 ‘唯殿下懋哉懋哉(무전하무재무재)’라 쓰고, 시는 반드시 4언으로 하였으며 끝에는 또 장을 나누어 말하기를 ‘제 몇 장’ ‘제 몇 구’라고 말하니 이렇게만 하면 참으로 전모·아송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단지 한 줄의 활기(活氣)도 없음과 한 점의 진의(眞意)도 없음만을 볼뿐이니 사람 가운데 활기가 없는 이는 나무인형이요, 문장 가운데 진의가 없는 것은 거짓 문일 따름이니 글을 지움에 어찌 나무인형·거짓 문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마음속으로 민망히 여기고 탄식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글을 지움에 혹시라도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놀라 두려워하여 마치 농부가 잡풀을 뽑아버리듯 하였으니 차라리 속될망정 거짓은 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명의 문장이 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 근엄하고 장중함이 지나쳐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 높은 것을 표방하다 보니 자달(自達)하지 못하여 문장이 꺾끄럽고 난삽하여 왕왕 구두(句讀)가 끊어

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명께서는 고문이 본디 이와 같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제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것이나 제가 일찍이 고명과 마주하여 “고상한 체 말고 낮추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득불 다시 고명께 이것을 얘기하니 고명께서는 오직 지금 사람은 고문을 해선 안되며, 고인 또한 스스로 고문을 한다고 행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신다면 좋은 글에 거의 가까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한번 만나 얘기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이편지는 1798년 신천능(1761~1803)이라는 경상도 거창 출신 문인에게 준 것으로 그는 서울에 와서 심노승의 집에 기식(寄食)하며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신천능은 이덕무에게도 시를 배웠다). 심노승은 그와 문학으로 가까이하였을 뿐 아니라 역사서도 함께 편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일찍 요절하자 몹시 비통해 하였다. 그 부친 신돈항(愼敦恒 1743~1809)은 거창의 향리로 학문과 문학으로 이름이 날던 인물이다(신돈항은 박지원이 입전한 바 있는 열녀 함양박씨의 사적(事蹟)을 찬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는 심노승의 문장관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심노승은 이 글 외에도 여러 곳에서 미수 허목으로 대표되는 의고체(擬古體) 문장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미수 문장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는 노론으로서의 심노승의 당파성도 개재되어 있다). 옛것의 자구의 찌꺼기에만 본뜨기를 힘쓰다 보니 진의(眞意)와 活氣가 전무한 거짓 글만이 남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사람은 고문을 할 필요가 없으니 그걸 의식하지 않는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속될지언정 거짓 문학은 하지 말며” “고상한 체하지 말고 낮춘다”면 참된 글이 나올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송보다는 명의 시가 훌륭하다  
(明詩律選拔)**

한의 문과 당의 시는 천지간에 가장 빼어난 것이었으나 송에 이르러 일변하였다. 의론(議論)을 주로 하는 것은 문이라면 관창을지 몰라도 시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차츰 내려가 남송 이후로는 시가 더욱 비루해지고 거칠며 알아져『시경』의 유지(遺志)가 사라져 버렸으니 읽으면 실증만 나게 되었다. 그런데 도리어 유약하고 경박하며 곱기만 한 사(詞)까지 지어 더욱 성정의 바름을 잃었으니 시도(詩道)의 망함은 기실 송에서 시작되었다.

명의 여러 작자들이 개연히 잘못을 바로 하는 데 뜻을 두어 한결같이 당을 표준삼아 감히 결음을 옮기지 않으니 성대하다 할 만하다. 그러나 당시가 배워 비슷해질 수 있음만 알고 배워 얻을 수 없음은 알지 못하였다더니 그때는 드디어 걸만 화려하고 실은 없는 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고인의 언행과 인격을 논하는 선비들은 왕왕 이를 꾸짖고, 혹 심한 이는 “송만 못하다”고 하니 아, 어찌 그리도 잘못되었는가! 곤룡포와 수놓은 치마를 입고 종묘와 조정을 느긋하게 걸어다니는 지를 보면 그 사람이 꼭 다 주공(周公)·소공(召公) 같은 성현일 리는 없겠으나 짧은 옷에 소매가 너털너털한 벼옷을 입은 장사치

나 노름꾼에 비교한다면 풍채와 모습이 그래도 사람으로 하여금 바라보면 경외의 마음이 들게 하니 이는 우부(愚夫) 우부(愚婦)도 다 아는 바이거늘, 명나라 사람의 시를 송나라만 못하다고 하는 것은 왜인가? 우리 나라의 시문은 송나라 사람 배우기를 마치 명나라 사람들이 당시(唐詩) 배우듯 하였으니 성기(性氣)의 가까움이요, 기호의 치우침이다.

명은 중엽 이전에 척신(戚臣)과 환관(宦官)들이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러 금고(禁錮)와 포망(捕網)이 천지에 가득해 사대부가 조정에 나아가 몸을 편히 할 수 없었고 시골로 물러나서도 마음을 편히 할 수 없었으니 울분에 찬 생각, 강개한 뜻을 시문에다 부쳐 스스로 울었다. 까닭에 그 말이 혹 절도에 맞지 않는 것이 많기도 하고 밖으로 내달리기도 하였으며 기괴(奇詭)한 말을 좋아하기도 하면서 시문으로 유희할 뿐이었다.

그런데 명 말에 이르자 학자들이 선생·장자의 이러한 본뜻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어 스스로 ‘시문은 이와 같은 것이로구나’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진계유(陳繼儒)·종성(鍾惺) 같은 무리가 나오자 교외와 종묘의 종과 복 소리가 변새 지역의 징과 피리 소리로 바뀌고 말았으니 이때는 장백산(長白山) 아래에 이미 눈을 흘겨 노려보는 자(청을 일으킨 만주족을 말함)가 있었던 것이다. 아, 이 어찌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의 논자들은 명나라 문인들을 공격하기를 더욱 힘써 심지어 ‘망국(亡國)의 노래’라고까지 말하게 되었고, 또 세상에 참다운 견해도 없어 다 여기에 붙쫓아 사양하며 “명의 시문은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대부들은 자체들에게 명의 글들을 보지 말라고 훈계하니 이리하여 일대(一代)의 작자가 거의 다 사라질 지경이다. 저 명의 여러 군자들은 절세의 재주를 지닌 채 쇠함을 일으킬 뜻을 품었건만 당대에 밝게 펴보지도 못하고, 죽어서는 또 해외소생(海外小生)들의 무엄한 비난까지 받으니 통탄할 만한 일이다.

나는 일찍이 방효유(方孝儒)·왕수인(王守仁)·당순지(唐順之)·모곤(茅坤)의 문장은 남송에는 없던 바였으며, 이몽양(李夢陽)·이반룡(李攀龍)·하경명(何景明)·왕세정(王世貞)의 시는 북송에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여겨 이러한 말을 사람들에게 하였더니 모두 다 배척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곳 유배지(경상남도 기장)는 황량하고 누추하여 책이라고는 없는데 요사이 동래(東萊)의 한 서생으로부터 『명시율선(明詩律選)』이란 책을 구하였다. 정(情)이 극진하고 수심이 절절할 때면 꺼내어 읽었는데 그럴 때면 마음이 환해져 마치 몸뚱이를 벗어버린 듯하였으니, 참으로 소동파가 말했던 이른바 ‘남쪽에 귀양와 얻은 두 벗’이라 할 만하다. 이리하여 그 책에서 손수 뽑아 베껴 한 책을 만들었는데 천계(天啓) 연간 이후의 것은 다 물리쳐 나 자신의 평소 뜻을 드러내었다. 아, 못사람의 말을 물리치려면 진실로 스스로를 믿음이 돈독해야한다. 뒷날 독창의 견해를 지닌 선비 가운데 또한 나의 뜻을 알아줄 자가 있을 것이다.

동생 태첨이 일찍이 나와 고금의 문장을 농할 때, 나를 두고 기이한 것을 힘쓰고 신이한 것만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매우 병통으로 여겼기에 서로 다투고 비난을 했었다. 이제 나의 이러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천리만 곳에서 그를 생각하고 개연해질 뿐이다. 계해년(1803년 9월22일) 泰登은 산하거(山下居)에서 쓰다.

옮긴이 김영진

# 논단

## ◇현대 가정예절과 미래사회의 기대◇

2003년 3월 40호에서 계속

### 5. [격몽요결(擊蒙要訣)]을 통해 보는 실천예절



대중회 이사  
沈 星 求

#### 14) 독경(篤敬)

배우는 자가 덕에 나아가 업을 닦는 것은 오직 공경을 돈독히 하는데 있다. 공경에 돈독하지 않으면 다만 빈말이 될 뿐이니 모름지기 표리가 한결 같아서 조금도 그침이 없어야 한다.

강설 : 말에는 가르침이 있고 움직

임에는 법도가 있어야 하며, 낮에는 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그 일의 연음이 있어야 하며, 눈 한번 깜짝하는 동안에도 보존하는 것이 있고, 숨 한번 쉬는 동안에도 양성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공부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계속했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직 날마다 쉬지 않고 힘쓰다 죽은 뒤에야 그만 두리라 여길 것이니 이것이 곧 實學이다. 만일 이런데 힘쓰지 아니하고 다만 박식(博識)만 따지고 이야기만으로 꾸며서 장을 빛내려는 자는 선비의 적이 되나니, 어찌 두렵게 여길 일이 아니겠는가?

#### 15) 거학(居學)

배우는 자가 학교에서는 모든 행동거지를 學수에 의거해야 한다.

강설 : 여럿이 함께 거처할 때에는 반드시 토론으로 하고, 예법에 맞는 몸가짐으로 엄숙하게 가지런히 정돈한다. 만일 스승과 선배가 학교에 있으면 읍(揖)을 하는 예를 행한 뒤에 질문하여, 虛心으로 가르침을 따르고 주선(周旋)하여야 하며 무익한 글을 물어서 마음과 힘을 헛되이 해서 안 된다.

#### 16) 독법(讀法)

매월의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여러 유생들이 학당에 일

제히 모여 사당(祠堂)에 배알하고 옹하는 예를 행한다.

강설 : 그 예를 마친 후 자리를 정하고 (스승은 북쪽 벽 쪽에 앉고 여러 생도는 三面으로 앉는다). 장의(掌議: 장의가 유고 시에는 유사(有司), 혹은 선독자(善讀者)가 대리한다.)가 소리를 높혀 '학교 모범'을 한 번씩 읽는다. 그리고 나서 서로 토론하여 실질적인 공부로 면려(勉勵)하며 (스승이 있을 때에는 질문한다.) 만약 의논할 때에는 곧 토론 할 것을 정하여(여러 생도들이 의논할 것이 있을 때에는 스승이 먼저 꺼내 준다.) 여러 생도들이 사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반듯이 장서(狀書)로써 모이는 장소에 알려서 여러 사람이 다 알도록 한다.

질병이 있거나 시골에 다니러 가는 일, 혹은 기일(忌日)을 당한 이외에 사고를 의탁해서 참석하지 않는 자가 두 번 그렇게 할 경우, 열흘 동안 모임에서 출좌(黜座)하는 것은 속(俗)에 소위 손도(損徒)라고 하는 것인데, 돌아와 자리를 허락해서 앉을 때에 반드시 모든 좌중(座中)이 그를 꾸짖는 것을 말한다.

#### 역사후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상기 내용들을 배우고 제때에 그것들을 익히면 인성교육으로서 예의 기본정신과 그 이념이 그들의 몸에 배어 인식하면서 실천하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예를 일일이 배워서 실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결과 나타나는 모든 행동양식이 저절로 禮가 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 변혁의 시기에 예절은 과연 어떤 자리 매김을 할 것인가?

지나간 시대의 의미 없는 윤리인가? 인간관계가 갈수록 삭막해지고 가정의 해체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정보혁명의 시대에 우리의 전통 윤리의 의의를 재발견함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부족한 양분을 보충하는 생명수를 반드시 꼭 얻어내야만 한다.

현재의 울곡의 격몽요결은 울곡의 유문(遺文)을 해주에서 직접 목판본으로 지은 것이다.

1611년에는 그의 제자들이 박지화(朴支華), 박여용(朴汝龍) 등이 성혼(成婚)과 의논하여 이때 성학십과 격몽요결 등을 보편(補編)한 것이다.



< 끝 >

## 알림

### 派(地域) 宗會旗 製作 申請

2006년부터 우리門中의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各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회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중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 기존의 종회기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靑松沈氏大宗會(02-2267-7857)

宗會名	靑松沈氏	宗會
住所		
電話番號	宅: - -	
	휴대폰: - -	
신청내용	종회기(깃대 포함) : 180,000원 종회기(깃대 제외) : 150,000원	

### 새봄을 맞이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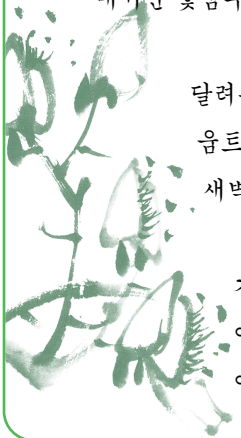
대중회이사  
沈 星 求

부슬부슬 새싹 돌아나는 소리  
선잠에서 깨어난  
영춘화 고운 자태

산기슭 바위 난간 넘어  
파란치마폭 감싸 안은 접동백 꽃잎  
매서운 꽃샘추위 내몰고

달려온 남녘의 귀빈  
움트는 생명의 소리 배회하며  
새벽길 열어가고

기다리던 은혜의 숨결  
아직은 풀리지 않은 가슴 안고  
여린 꽃래 매만지고 있다.



## 靑松沈氏 Internet 宗親會

- 會 長 : 忠 燮
- 副 會 長 : 惠 剛 載 一
- 總 務 : 載 珉
- 監 事 : 賢 貞
- 理 事 : 載 輪 相 淑 文 輔 宣 輔 (천안)  
宣 輔 (성남) 采 闇 秀 輔 潤 根  
嬉 貞 仁 子

- 會 長 : 成 輔
- 副 會 長 : 相 昊 中 來 載 龍
- 監 事 : 義 輔
- 總 務 : 揆 完
- 理 事 : 悌 澤 星 鎮 琦 燮 元 燮 良 燮 好 植 仁 植  
載 成 載 駟 載 國 載 錫 載 元 載 政 載 玹  
載 權 載 福 亨 輔 明 彥 潤 求 載 坤

一五回定期總會 任員改選

## 清州·清原宗會

# 宗 事 消 息

## 五世祖 安孝公(諱:溫)忌辰祭 奉行

2006년 2월11일(음 12월25일)



初獻: 奭鎭(水原)      亞獻: 相龍(安孝公宗會 副會長)  
終獻: 鍾赫(大宗會 總務)      大祝: 容圭(舍人公 總務)  
執禮: 相稷(安孝公 總務)      執事: 彦村 應植(수원) 載澈(서울)

## 11世祖 忠翼公 配位 忌辰祭奉行



初獻: 良燮      亞獻: 百燮  
終獻: 佑燮      大祝: 明燮  
執禮: 洪燮      執事: 成燮 載澈

## 大宗會 第54回 定期理事會 開催



◎ 理事會議 光景      유림회관 전통실

2007년도 大宗會 定期理事會를 3월 22일(목) 종로구 명륜동 유림회관(전통실)에서 많은 理事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明求 會長님의 인사말에 이어 2006년도 업무추진 내용과 결산결과 및 이익잉여금처분(안) 그리고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하였다. 會議는 11시 정각에 시작하여 집행부의 보고내용을 하나하나 審議하여 異議없이 통과시킨 후 12시 40분에 회의를 마치고, 지하 2층 식당에서 갈비탕과 소주로 점심을 들면서 일가간에 친목을 도모하였다.

### - 參席者名單(78名) -

- <會長團> 明求 宜洛 庚周 斗燮 甲輔 相殷 相郁 贊求 相稷 載冕 春植
- <執行部> 載烈 鍾赫 仁輔
- <서울> 英輔 宜杓 愚範 容圭 堯澤 相助 奎澤 載福 愚龍 載珍 載求 洪燮 載澈 愚增 暎求 贊 相默
- <인천> 在安 德求 相振 左輔 大植
- <울산> 根植 應輔
- <경기> 光澤 應璋 載萬 求亨 康燮 相英 相弘 允輔 良燮 洵燮 忠燮
- <강원> 相汶 相穆 晟求 正輔 相夏 相甲
- <충북> 成輔 載龍 揆完 鍾漢
- <충남> 承澤 允澤
- <충남> 宜哲 玄根
- <경기북> 湖澤 源澤 相國 鼎澤 喆鏞 花鮮
- <전남> 鍾德 觀燮 行燮
- <전북> 相泳 佶燮 塔燮 相根 尙道 正秀

### - 委任者(委任狀) 31名 -

- <서울> 相學 仁植
- <경기> 相億 相龍 鍾洪
- <강원> 相祐 載求 茂植
- <충남북> 相昊 泓植 永鍾 中鎭 載重 逸燮
- <경남북> 宜爽 在叔 吉守 在圭 柱燮 龍輔 守輔 홍섭 東燮 泰燮
- <전남북> 堯燮 在均 愚慶 鎭植 判求 載政 憲燮

## 五世祖 安孝公(諱:溫)正月節祀 奉行

2007년 2월 18일(음 正月 初하루)



初獻: 奭鎭(水原)      亞獻: 萬鎭(水原)  
終獻: 相憲(水原)      大祝: 容圭(서울)  
執禮: 相稷(安孝公宗會 總務)  
執事: 彦村 載玉 應호(水原) 載澈(서울)

## 端懿王后 忌辰祭 奉行

2007년 3월 25일(3월 끝일요일)



▶ 구리시 동구릉내 의혜릉      亞獻官: 昌輔

## 六世祖 恭肅公(諱:滄)忌辰祭 奉行

2월 28일(음 1월 12일)



初獻: 仁輔(중손)      亞獻: 建輔(공숙공중무)  
終獻: 昌燮(김포)      大祝: 養燮(영태리)  
執禮: 洪燮(봉천동)      執事: 載澈(서울) 敎澤(영태리)



▶ 參班者 21명: 斗燮 相稷 浩澤 春澤 奎澤 相雨 相萬 相弘 昌燮 康燮 元輔 仁求 洪燮 忠燮 載澈 容圭 章燮 愚夏 左輔 仁輔

會 長: 大석  
副 會 長: 형석 충섭  
監 事: 영모  
總 務 事: 영순  
理 事: 차영국, 영기, 영우, 영진, 영철, 영영, 진영태, 영도, 명호, 사문, 우찬, 이영양, 상인상의

### 青松沈氏城南宗會 任員改選

會 長: 相睦  
副 會 長: 仁求 相泳  
監 事: 相國  
總 務 事: 相燮 相燮 相燮  
理 事: 相俊 相榮 相信 在秀 炳燮 理燮 斗燮 昌燮 良一 亮燮 載日 暎術

### 青松沈氏益山宗會 任員改選

會 長: 龍輔  
副 會 長: 敬道 載德 載榮 萬仁 載富  
監 事: 得龍 金培  
總 務: 秀輔

### 青松沈氏釜山青松會 任員改選

會 長: 奎澤  
副 會 長: 根澤 相植(正一)  
監 事: 載福 重燮  
總 務: 埃成(하영림, 輔)  
運 營 委 員: 甲植 載宗 載休 洋燮 亮燮 항래 點燮

青松沈氏西서울宗親會 任員改選  
諮問委員(顧問): 錦山 載凱(載珍) 洵燮 相奎 三祚

會 長: 憲燮  
副 會 長: 亨燮 丑燮  
監 事: 載平  
總 務: 相殷 采燮 鶴燮

### 祝 宗報發展 光州金堂山斗岩宗會

# 강좌

## ■ 심갑보(三益 THK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



부회장 심갑보

### 왜 법과 원칙인가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200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작년보다 낮은 4%대 초반 선으로 발표했다. 또한 경영자총협

회가 전국120개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응답자의 75%가 “올해의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히고 있어 경제계가 크게 긴장을 하고 있다.

2007년도는 경제여건의 악화와 함께 대선 정국으로 인해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불안정한 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외부적 불안요소에 산별노조확산과 대기업의 산별교섭 참여문제 등 내부적인 불안요인이 결합함으로써 기업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노사관계가 산별노조로 바뀔에 따라 산별노조는 교섭사항의 확대와 기업경쟁력을 무시한 과다한 임금 요구가 성행함으로써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별노조는 요구사항 관철을 위하여 대규모 총파업, 동조파업 등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크고, 기

업 지부는 산별노조의 파업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 개별기업의 실정과 무관한 파업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우리나라는 노사관계의 유연성결여, 강성노조의 잦은 불법파업, 법과 원칙이 실종된 노사분규 등으로 경제의 발목이 잡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들의 투자가 이탈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걱정거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신문은 “과격하 노사분규와 정부의 경직된 투자정책 등으로 외국인의 투자가 주춤해진 상황”이라며, “현대차 노조의 불법파업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이 더욱 싸늘하게 돌아서고 있다”는 태미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의 견해를 덧붙였다.

대기업 노조들은 파업으로 이익을 챙길지 모르지만 수많은 중소기업체들은 대기업 노조들의 파업으로 생산기조에 있거나 이미 도산한 업체도 상당수 있어 파업은 우리나라 경제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월7일 발표한 “법·질서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1991-2000년의 10년 간 낮은 법·질서 준수로 인해 매년 1%포인트 내외의 경제성장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일이다.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양보해서는 안될 경영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를 지켜야하며, 우선 분규를 막아보자고 이종협약을 체결한다거나 모 제조업체의 예에서 보듯이 뒷거래를 하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다.

정부에서도 말로만 무성한 법과 원칙의 준수가 아니라 현행법을 위배한 경우 사용자든 근로자든 단호하게 처벌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불법파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근로자의 파업행위는 자신들이 받을 임금을 희생하면서 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서도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요구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만일 파업근로자에게 특별상여금·생산장려금·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법에서 금지한 급여를 변칙적으로 지급한다면 불법파업은 근절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사용자가 윤리경영 정도경영을 정착시키고 경영정보 공개를 시스템화하여 근로자들의 불만을 미리 해소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근로자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급여인상을 요구하고 노동관계법에 명시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추구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를 해야지 이를 정치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노동조합도 법규를 준수하고 불법파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기업도 근로자도 함께 공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합심일체가 되어 위의 원칙들을 지켜나갈 때만이 우리나라는 노사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선진국 진입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 끝 >

## ◆ 春季時享日表 2007年 ◆

世	휘(諱)	陽曆	曜日	陰曆	所在地
始祖	文林郎公(휘: 洪孚)	4월 6일	金	2월19일	靑松邑 덕리 보광산
	中臺山所	4월 6일	金	2월19일	靑松邑 부곡리 중대산
二	閣門祗候公(휘: 淵)	4월27일	金	3월11일	咸悅邑 남당리 남당산
三	靑華府院君(휘: 龍)	4월29일	日	3월13일	安城市 당왕동 산19
三	配位 金氏	4월29일	日	3월13일	安城市 도기동 산64
四	靑城伯(휘: 德符)	5월 1일	火	3월15일	漣川 미산면 아미리110
四	配位 淸州宋氏	5월 3일	木	3월17일	淸州市 분평동 산8
四	岳隱公(휘: 元符)	5월11일	金	3월25일	靑松郡 파천면 경의재
五	安孝公(휘: 溫)	4월 6일	金	寒食	水原市 이의동
五	配位 順興安氏	4월30일	月	3월14일	安城市 금광면 능말
六	良惠公(휘: 石雋)	5월 6일	日	3월20일	龍仁市 포곡면 동막동
七	忘世亭公(휘: 璿)	5월 9일	水	3월23일	南楊州市 진접읍 오남리
王后	昭憲王后	4월28일	土	3월12일	驪州郡 능서면 英陵
王后	仁順王后	4월22일	日	3월 6일	노원 공릉동(태릉內 康陵)
王后	端懿王后	3월25일	日	2월 7일	구리시(동구릉內 惠陵)
	世宗大王	4월 8일	日	2월21일	驪州郡 능서면 英陵
	淑容沈氏	5월 5일	土	3월19일	恩平區 진관동
	宗廟大祭	5월 6일	日	3월20일	鐘路區 宗廟
	彪義祠	4월26일	木	3월10일	長城郡 삼서면

### 청송심씨 카페 032 개설 공시

청송심씨 대종회가 탄생 된지 반세기, 인천종회가 1969년 6월에 발족되어 어언 36년이 되는 날까지 지나간 세월 속에 우리의 머리가 파뿌리가 되는 연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나마 대화의 광장이요 친족간 정의 사랑방 역할을 할 인터넷 카페를 열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2005년 5월 13일을 기해 청송심씨 카페를 개설하게 됨을 공시하는 바입니다.

카페지기 심 명 구(인천종회 감사)

### ◎ 청송심씨 카페 엿보기 / 가입 요령 ◎

- ☞ 카페주소는 : (WWW 없이) cafe.daum.net/shim032로 들어오시면 되며 카페가입 전에는 손님으로 읽을 수만 있으며( <유모아와 풍자> 는 제외) 가입해야 정회원이 되고 정회원이 되어야 글이나 꼬리말을 올릴 수 있습니다.
- ☞ 카페가입 요령은 : 카페가입이란 표를 클릭하고 컴퓨터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하면 가입 등록이 끝납니다. (즉 카페가입 ▶ 회원가입(실명으로 할 것) ▶ 회원종류에서 일반고객 ▶ 약관/동의서에 동의 ▶ 실명증명(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번호 ▶ (확인하는 절차 후) ▶ 최종 사과 먹은 아이 찾기 게임이 끝나면 가입완료 됨.

僉宗諸位 貴下

會長 沈 晶 求

青松沈氏仁壽府尹公派宗會

二〇〇七年 二月 日

- 一. 會務報告
- 二. 監查報告
- 三. 二〇〇六年度特別會計收入支出決算報告承認의件
- 四. 二〇〇六年度一般會計收入支出決算報告承認의件
- 五. 二〇〇七年度事業計劃案承認의件
- 六. 二〇〇七年度特別會計收入支出豫算案承認의件
- 七. 二〇〇七年度一般會計收入支出豫算案承認의件
- 八. 其他宗務에關한事項

春享日時 二〇〇七年 五月 九日 陰曆 三月 二三日 十二時  
總會一時 二〇〇七年 五月 九日 陰曆 三月 二三日 十二時  
總會場所 南楊州市 梧南邑 陽地 里 忘世亭 公墓 域

二〇〇七年度定期總會를 당료와 같이 忘世亭公春享節 祀奉行日에 開催합니다

## 靑松沈氏仁壽府尹公派宗會

公 告

<기행문>

## 자유 의 여신상



대중회 이사  
沈英輔

뉴욕시 맨해튼구의 남단 뱃테리공원 앞을 출발한 서클·라인 보트가 선창가 멀어지면서 시가지의 임입한 빌딩숲이 스모그에 잠겨 있는 모습을 드러낼 때, 고개를 돌려 배가 향하는 앞쪽을 바라보니 왼쪽으로는 바야흐로 망망대해가 전개되어 가고 그 오른편 한 구석에는 자그마한 검과 그 가운데에 우뚝 솟은 한 개의 동상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리버티섬의<自由의女神像>이다.

이곳은 뉴욕에 사는 친구들도 어떤 이는 10여 년을 사는 동안에 단 한번도 찾아가 본 일이 없이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았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손님이 올 때마다 안내하느라고 매년 2~3번 이상은 가보게 된다고 하는 그런 곳이다.

배가 점점 이 작은 섬에 접근해 가자 섬의 한쪽 끝에 조용히 그리고 우람하게 서 있는 여인 모습의 이 거대한 동상이 차차 그 윤곽을 뚜렷이 하는데, 머리에는 보석(창문들)으로 장식된 가시관을 쓰고 몸에는 부드럽고 치렁치렁한 도복을 걸쳤으며 왼팔에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끼고 오른 손으로는 햇불을 높이 쳐들어 온누리를 향하여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해 마지않는 <自由> 의 상징물이며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직접 가서 보기를 희망하는 그런 대상물인 것이다.

보트에서 내려 섬에 오르니 이 섬은 전체가 하나의 공원으로 되어 있어 그 한쪽가 남연에 이 동상이 자리한 곳이 있고, 그밖에는 모두가 잘 다듬어진 잔디밭과 산책로와 곳곳의 벤취들, 그리고 기념품 상점과 공원관리 시설물들이다.

여신상의 모습을 좀더 가까이에서 자세한 관찰하려고 동상의 전면으로 접근하여 보니 올려다 보이는<自由>의 정상부는 까마득하여 마치 수십층 높이의 빌딩을 그 입구 근처의 지상에서 올려다보는 경우와 같아 그 크기나 모양은 가늠조차 할 수 없고 오직 늘어뜨려진 옷자락

과 크라운에 장식된 몇 개의 가시만이 일부분씩 보일 뿐이어서 어딘가 크게 압도해 오는 느낌이다.

더 이상 올려다보기를 포기하고 안내서를 들춰보니, 이 동상은 1876년의 미국 독립 1백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친선의 뜻으로 기증한 것으로 프레데릭 바톨디(1834~1904)가 디자인하여 만든 것인데, 그 상의 높이가 무려 1백51피트(사람 키의 근 30배)요 무게가 45만 파운드(약 2백톤) 그리고 입의 크기만도 3피트(약 90cm)이며 머리 위에는 사람이 40명이나 올라갈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보이 이 동상의 규모를 발 밑에서 올려다보고 그 전체를 헤아리려 한 것이 헛된 일이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하겠다.

바로 이 거대한 여신상은 그의 사진을 보거나 이름만 들어도 곧 미국을 연상할 이만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어서, 미국 내에 있는 다른 어떤 형상물들 예컨대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나 죠지·워싱턴의 초상화 또는 백악관의 모형이나 금문교의 사진 따위로도 그 이미지를 대신할 수 없는, 어쩌면 거의 유일하다고도 할 수 있는 <美國>의 상징이요 대명사인 것이다.

그것은 이 자유의 여신상이 특히 그 독특한 외모로 인하여 미국이 자유 평화 평등의 나라라는 것을 대변하는 인상을 주어진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내경(內景)은 어떠한가?

여신상의 내부로 들어가는 길은 기단부 후면의 지층에 있었는데 입구로 들어서니 넓고 높은 홀이 펼쳐지고 그 한복판이 휴게실, 주위에 안내실과 기념스탬프 찍는 곳, 우표 파는 곳 등이 있고 홀의 2층 베란다에 이 기념물의 연혁이며 건립과정 등을 사진과 설계도 등을 곁들여서 소상히 설명해 주는 작은 전시장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상의 기저부에 오르니 동상의 텅빈 몸통 속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외벽은 굴곡진 동관(옷자락의 내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중심부에는 두부까지 이르는 10여층 높이의 철계단들이 나선형으로 설치되어 있다.

행렬을 따라 여기까지 이르는 하였으나 마치 남의 감춰진 비경, 아니 신성한 여인의 온몸 구석구석을 탐낼래 들여다 보기라도 하는 것 같아 땀땀치 못한 듯한 기분까지 일었으니, 모르긴 몰라도 이런 류의 구조물이 동방 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에 축조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시비가 족히 인구에 회자하리라고도 추측되었다.

아름든 이역만리에서 천금의 값어치로 얻어진 이 기회에 딴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줄이든 관광객들 틈에 묻혀서 좁고 가파른 1백68개의 계단을 빙글빙글 돌면서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구경 온 어린이들은 신기한 미로놀이라도 한다는 듯이 신들이 나서 소리치르며 뛰어 오르내리니 계단 길은 혼란하기 이룰데 없어서 앞사람의 구두가 다음 사람의 코를 건어찰 정도인데 한 여름의 밀폐된 동관 통속은 짐통을 방불한 폭폭지는 더위로 얼굴과 등어리에서는 땀이 냇물 흐르듯 흐르고 숨은 헉헉 막혀오는 것이 마치 자유의 정상에 이르는 시련의 길이기도 한 듯 했다.

어찌 그만한 부자 나라에서 에어컨 시설을 해놓지 않았는지 심히 의문스러웠다.

그러나 어쨌든 끝은 있어서 땀 닦던 수건을 두 번째 짜낼 무렵에 드디어 주위가 갑자기 더 환해지면서 두어평 남짓의 공간에 다다르니 여기가 동상의 두관부여서 몇 개의 창문(크라운의 보석자리)으로부터는 밝은 햇빛과 시원한 바람이 쏟아져 들어와 고행자의 노고를 위로라도 하는 듯 온 몸에 휘감긴다.

창구 앞으로 다가가서 외계를 살펴보니 뉴욕시가 자욱한 안개 속에 까마득하게 전개되어 있고 그 앞 항구에는 몇 척의 배가 점점이 한유하고 있다.

상쾌한 바닷바람을 더 즐길 여가도 없이 밀려드는 뒷사람에게 자리를 넘기고 돌아서니 작은 돛처럼 생긴 크라운의 내벽이 또한 눈길을 당기는데 그것은 벽과 천정의 곳곳에 손길이 닿을만한 데는 가리지 않고 여기 저기에 가지각색의 낙서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존·A·허드슨, 76.8.10>. <드디어 성취하다. F·코린스>. <결혼기념방문 H·잭슨 부부>.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 스칼파노>... 등의 기념낙서를 비롯해서 <아! 얼마나 갈구하였던가!>, <크라운에 박힌 7개의 가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가장 완벽한 자유는 운전하는 동안과 화장실에 있을 때 뿐, 어느 남편>, <75년간 밝혀온 햇불은 자유를 구가하는 것이냐? 아니면 절규하는 것이냐?>... 등 무슨 깊은 사연이라도 토로하려는 듯한 익명의 낙서들이 그것이다.

하행 길에 접어들어 이런 문귀들의 숨은 뜻을 음미해 보는 나의 심정은 그 어느 때없이 착잡하였다.

< 끝 >

沈英輔 서울대의대졸업. 외과병원운영. 가천의대길병원 기획조정실장

##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분	페이지	가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1,134	50,000원	(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448	30,000원	( )권
3. 종보축쇄판(1-50회)	400	20,000원	( )권
4. 제향흥기(휴대용)	30	3,000원	( )권
5. 종사수첩(휴대용)	120	3,000원	( )권
6. 뱃지		1,000원	( )개



▶ 1, 2, 3 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과명	이름	집전화	휴대폰
주소		우편번호	
송금일자	송금인	금액	송금은행
		( )은행 ( )지점	

###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 ◆ 질단위 외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 ◆ 송금인이 본인이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TEL : (02)2267-7857, 2263-7897 FAX : (02)2269-7755  
\* 송금구좌 농협 084-01-179314(심명구)

## 青松沈氏 大田·忠南地區宗會

### 五二回定期總會任員改選

顧問 元重載榮  
指導委員 大平 逸燮  
會長 宜哲 昌擘 揆讚 正輔 基福 揆澤  
副會長 雄澤 聖輔  
理事 揆善  
總務理事 揆善  
理事 (대전) 재철 화섭 흥택 재훈 상홍 중흥 중훈  
재성 성보 상호 재중 재설 재필 재윤 규익  
희돈 용택 (천안) 문택 (부여) 갑택 중섭  
재운 (서산) 상우 홍식 재창 (공주) 재선  
의수 규철 우춘 (논산) 덕보 명식 (예산)  
승택 (아산) 중근 (당진) 상하 재영 (홍성)  
동섭 (영기) 용배

### 祝

#### 沈 載 憲 (科學體育學博士學位取得)

益山市 金馬面 昌燮氏의 長男 載憲 (群山大學大學院 科學體育學 專攻)하고 과학체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 沈 秉 燮 (工學博士學位取得)

益山市 黃登面 相榮氏의 長男 秉燮 (圓光大學校 電子工學 專攻)하고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 訃 告

#### 載冕(大宗會監事)

母親께서 99세(白壽) 넘기시고 2월 9일 오후3시 別世(충남 천안시 목천)  
嗣子: 載冕 載國 載重 딸: 載玉 載姪 載淑

#### 勝俊(金堂山宗會長 大宗會理事)

2월 9일(상무병원) 별세(83세)  
嗣子: 裁允 裁昊 裁晟 裁明 裁晄 裁映  
딸: 玲姬 珠姝(사위: 崔炳朝 金恩泰)

### 人

### 事

- 載勳: 한국수력원자력 경영기획처 지역협력 부장
- 鍾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본부
- 병연: 전북도 여성가족 과장
- 정근: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경기지사 비촉팀장
- 일출: 농수산물유통조정팀 유통기획 부장
- 一雲: 중앙대학교 자연대학 대학장
- 경섭: 한화그룹 한화화학부문 전문
- 상운: 산업은행 신탁본부장
- 인섭: 산업은행 IT본부장
- 연수: 호남대 홍보실장
- 德燮: 외교통상부 기획관리실 기획심의관
- 載駘: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 東燮: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 팀장
- 심용: 한화증권 평택지점장
- 俊輔: 대법원 행정처
- 揆弘: 대법원 정책연구심의관(총괄) 재판연구관
- 亨燮: 대법원 부산고법
- 延洙: 서울 중앙지법
- 揆贊: 수원지법
- 瑩眞: 성남지원
- 俊輔: 대전지법
- 賢芝: 광주지법
- 沈判: 인천지법
- 在光: 진주지원
- 원섭: 현재자동차 이사대우
- 현석: 기아자동차 이사대우
- 雨廷: 법무부 검찰과
- 載哲: 법무부 특수법령과내정
- 載賢: 법무부 광주지검 검사
- 在桂: 법무부 전주지검 부부장
- 寧哉: 행정자치부 조직기획처
- 기보: 경기도 지역정책과장
- 규박: 동국대 경주캠퍼스 입학처장
- 민철: 영남대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
- 惠英: 설경대 동북아 연구소장
- 남주: 삼천리 E&C(주) 건축팀장
- 우진: 경향신문 전략기획실 기획인사팀
- 상문: 광주광역시 총무
- 敦植: 금호생명 서석지점
- 眞暎: 열린사이버대학 교학처장
- 宰滿: 삼성증권 IPO부장
- 相淳: 건대서울캠퍼스 농축대학원 행정실장
- 泳求: KT&G 신탄진제조창 원료공부장
- 墳祐: 신영증권 투자금융부 부장

### 誠金에 感謝합니다

#### 宗 報 贊 助

仁川宗會	200,000		
英輔	100,000	명륜동	
윤도	30,000	응봉동	
상호	30,000	영주	
산홍삼	30,000	달성	
논산익모종중	100,000		
재성	30,000	固城	
재환	30,000	익산 남상면	
달섭	30,000	독산동	
상만	30,000	평택	
의수	20,000	정안면	
晉州宗會	100,000		
鐵原宗會	200,000		
潤燮	20,000	분당	
相翰	50,000	쌍문동	
相學	100,000	쌍문동	
光州斗岩宗會	500,000		
金浦 霞城宗會	150,000		
재환	50,000	일산 가좌	
西서울宗會	100,000		
春川信川公宗會	100,000		
春川信川公宗會長	100,000	相汶	
淸州·淸原宗會	200,000		
淸州·淸原青松會	200,000		
大田·忠南地區宗會	100,000		

#### 理 事 會 費

英輔	50,000	2007년	明倫洞
洪燮	50,000	2007	봉천동
柱燮	50,000	2007	이반성
在圭	50,000	2007	이반성
應璋	50,000	2007	果川洞
宗玉	50,000	2007	구성면
光永	50,000	2007	반포동
相弘	50,000	2007	金浦
載澈	50,000	2007	제기동
逸燮	100,000	2006~7	大田
鍾洪	100,000	2007~8	소사동
相學	50,000	2007	雙門洞
秀輔	50,000	2007	釜山
愚增	50,000	2007	구산동
泰燮	50,000	2007	固城
茂植	50,000	2007	三陟
載重	50,000	2007	大田
仁植	50,000	2007	仁川
鎭植	50,000	2007	光州
判求	50,000	2007	光州
東燮	50,000	2007	晉州
載善	50,000	2007	仁川
忠燮	50,000	2007	廣州
載珍	50,000	2007	홍은동
萬仁	50,000	2007	釜山
堯澤	50,000	2007	당산동
在均	50,000	2007	光州송암
愚夏	50,000	2007	여의도동
湖澤	50,000	2007	大邱
泓植	50,000	2007	瑞山
相貴	50,000	2007	정읍
載炫	50,000	2007	여수
愚範	50,000	2007	잠실
相勛	50,000	2007	영등포
宜杓	50,000	2007	독산동
暎求	50,000	2007	진관동
相贊	50,000	2006	쌍문동
愚龍	50,000	2007	마포
宜哲	50,000	2007	大田
玄根	50,000	2007	대전
鍾德	100,000	2006~7	光州
觀燮	50,000	2007	광주
在安	50,000	2007	仁川

德求	100,000	2006~7	인천
大植	50,000	2007	인천
相億	50,000	2007	水原
求亨	50,000	2007	수지
良燮	50,000	2007	漣川
相英	50,000	2007	金浦
允輔	50,000	2007	김포
洵燮	50,000	2007	安養
相穆	50,000	2007	春川
相汶	50,000	2007	춘천
晟求	50,000	2007	춘천
敏燮	50,000	2007	原州
正輔	50,000	2007	원주
相夏	50,000	2007	鐵原
相甲	50,000	2007	철원
成輔	50,000	2007	淸州
相昊	50,000	2007	청주
載龍	50,000	2007	청주
鍾漢	50,000	2007	鎭川
承澤	50,000	2007	禮山
尙道	50,000	2007	全州
相根	50,000	2007	전주
佶燮	50,000	2007	益山
相泳	50,000	2007	익산
瑑燮	50,000	2007	咸悅
行燮	50,000	2007	長城
喆鏞	50,000	2007	醴泉
花鮮	50,000	2007	예천
容奭	50,000	2007	예천
正秀	50,000	2007	全州
相默	50,000	2007	마포
允澤	50,000	2007	아산
相郁	300,000	2007	大宗會副會長
明輔	100,000	2006~7	金浦

#### 誤 字 訂 正

載求(三陟) 50,000 2006년을 ▶2007년으로  
鍾洪(소사동) 50,000 2005년을 ▶2006년으로

#### 理 事 會 獻 誠 金

沈承澤	300,000	醴山宗會長
昶柱(植)	50,000	春川
炯柱(植)	30,000	春川
範柱(植)	30,000	春川

#### 송 금 안 내

찬조금 또는 종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중회 심명구

· 농 협 084-12-055823  
(을지로4가지점) 084-01-179314  
대중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 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회계로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 송 심 씨 대 중 회  
전화: (02)2267-7857

#### \* 5처산소 유사 연락처 \*

世	관 직	소재지	유 사	전화번호
시 조	문림랑	청 송	相國源澤	011-554-1313 011-9355-3608
2세조	합문지후	함 열	瑑燮	011-676-0892
3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庚周	011-9801-4815
4세조	청성백	연 천	良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輔	019-480-9994